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초도비행 성공

T-50 골든이글 초도비행

국내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가 지난 8월 20일 초도비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전문화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대표:길형보)는 국내에서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가 이날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실시한 최초의 성능 시험비행에서 활주로 주행, 이륙, 비행, 착륙에 이르는 비행성능 평가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공중에는 40분간 머물러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비행에서는 항공기의 기본성능, 조작성, 기본 시스템의 작동, 비행시험기구 및 원격자료 송수신 등에 대한 시험이 이루어졌다.

이날 T-50 고등훈련기의 시험비행을 수행한 공군 T-50 시험비행 조종사 조광제 중령은 비행성능 테스트 후 "국내에서 개발한 초음속 항공기를 비행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 T-50 항공기는 조종이 용이했으며, 이착륙시 비행안정성이 기대 이상으로 탁월했

다. 향후 보다 많은 분야에 대한 시험비행이 진행될 것이며 오늘과 같은 성공적인 비행을 거친 후 우리는 훌륭한 국산 고등훈련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라며 국산 초음속 항공기의 우수성에 감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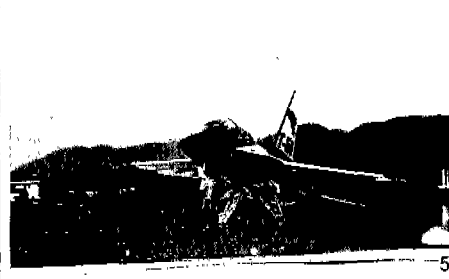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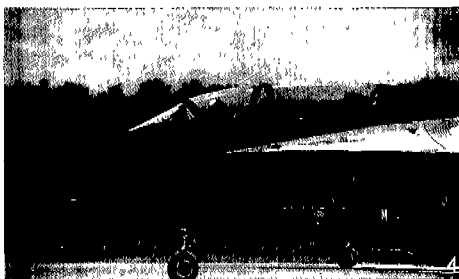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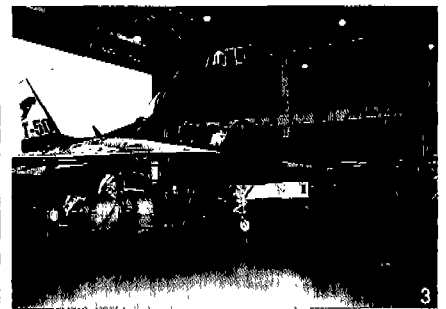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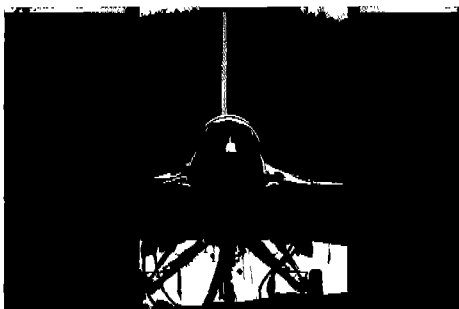
국내에서 개발된 초음속 항공기가 국가 영공을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948년 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원조받은 10대의 L-4 연락기의 정비사업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발전 역사상 50년만에 이룬 쾌거이다. 전세계적으로도 자체 개발한 고유모델의 초음속 항공기를 보유한 국가는 12개국에 불과해 이번 시험비행의 성공은 우리나라가 항공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섰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번 시험비행은 지난 '97년 10월부터 공군의 사업관리하에 한국항공우주산업(주)가 국내외 협력업체와 더불어 항공기의 기본 및 상세설계,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개발, 전방, 중앙, 후방동

- 1 격납고에서 T-50 골든이글 시제1호기가 위용을 드러냈다
- 2 격납고내에서 지상요원들이 엔진점검 등 초도비행에 나설 T-50 항공기를 점검하고 있다
- 3 항공기 시동 위치로 이동/견인을 위해 항공기 보호장

- 구(항공기출입구 커버)를 제거하고 있다
- 4 관제탑의 이륙개시 전중신호를 기다리며 활주로에서 이륙대기를 하고 있는 T-50
- 5 이륙직후

- 6 T-50 공중기동 모습 초도비행이라 착륙장시군 접지하고 많은 상태로 비행중이나 고도 15000피트 상공에서 40분간 항공기의 기본성능, 조작성, 기본 시스템의 작동, 비행시험기구 및 원격자료 송수신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비행은 지난 '97년 10월부터 공군의 사업관리하에 한국항공우주산업(주)가

국내의 협력업체와 더불어 항공기의 기본 및 상세설계,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개발, 전방, 중앙, 후방등체 등의 부분품 제작과 최종조립 등

신기종 항공기 개발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이다.

| 편집실 |

체 등의 부분품 제작과 최종조립 등 신기종 항공기 개발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번 T-50 고등훈련기의 비행은 초음속 항공기의 국내개발 능력을 국내외에 과시함과 동시에 독자적인 항공무기체계 운용기반 구축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 KT-1 기본훈련기와 T-50 고등훈련기로 비행훈련을 받게 되는 우리 조종사들의 자부심과 긍지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50 고등훈련기는 지난 '91년 항공기 개발이 결정된 후 '97년부터 공군의 사업관리하에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가 공동개발하는 초음속 항공기로, F-16, F-15, 라팔, F-22 등 전세계 최고 성능을 지닌 차세대 전투기의 조종훈련을 위해 설계된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이다. 길이 13.14m, 폭 9.45m, 높이 4.94m의 T-50 고등훈련기는 최대속도 마하 1.4, 최

대이륙중량 12,000kg, 실용상승고도 14,630m로 F-16 수준의 기동성능과 F-4 수준의 무장성능을 갖추고 있다.

T-50 고등훈련기는 80년대부터 제기된 T-38, TF-5B 등 노후 훈련기 대체기종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이 진행된 항공기로 고도의 기동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비행제어 시스템, 신뢰성과 안정성이 향상된 첨단 디지털 엔진제어 방식의 F404-GE-102 엔진, 전투기보다 높은 구조하중 기준을 적용한 견고한 기체구조 및 착륙장치 등을 적용해 동급의 유사 훈련기 중 최고의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0년대 전세계 항공업계에서 최초로 출시되는 고등훈련기 기종인 T-50 고등훈련기는 이미 노후화된 세계 고등훈련기 시장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최소 800대, 시장점유율 25%, 총 3백억 달러 상당의 해외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록히드 마틴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7 기체 하방에서 포착한 T-50의 배면

8 노즈기어가 지상에 닿는 순간! 초도비행을 무사히 마친 T-50이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하고 있다

9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임직원들과 공군 관계자들이 온전한 가운데 T-50의 역사적인 초도비행 성공을 자축하고 있다

10 초도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공군 제2시험평가전대 소속의 시험비행 조종사 조광제 중령 그는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으로 만든 최초의 초음속 양공기 제1호 피일렛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시험비행에 임했다고 한다

11 시험비행 조종사의 지면기 조종사의 기념촬영(좌로부터

테 정석원 중령, 조광제 중령, 이종탁 소령, 김주일 소령, 김천곤 소령)

12 시험비행 조종사 및 지원기 조종사의 임무성공은 축하하는 이진혁 공군 항공사업단장과 김형보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사장

